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일손이 바쁜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철 식사 준비와 함께 영농에도 참여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농업 활동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총사업비는 1억4000여만원, 대상은 45개 마을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급식소는 마을 여건에 따라 운영되는데, 일정 장소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32개소와 식당 이용 8개소, 도시락 배달 5개소이다.

시는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중 2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조리시설이 갖춰진 마을에 지원,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40일 이내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또는 도시락 배달, 식당 이용 비용을 마을별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구제역 유입 차단 위한 긴급 방역 대책 실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연달아 11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은 관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우제류 농가에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상황전파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축산차량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흥덕면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이 24시간 가동중이다.

또 축협 등 관련 생산자단체 외의 기축방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 예찰, 방역수칙, 백신접종 등 방역 대책을 안내했다.

지난 17~20일까지 진행된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은 우제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군과 방역본부에서는 매일 우제류 농가에 전화에 찰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농특산품 동남아시아 수출

고창군, 말레이시아KMT·싱가폴 고려무역과 수출 협약 체결

고창군 평품 농특산품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고창군은 22~23일 고창 농특산품의 동남아시아 수출회대를 위해 한국식품 수입업체인 말레이시아KMT(대표 이마테오), 싱가폴 고려무역(대표 윤덕창)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MT(주) 대표 이마테오는 30년째 한국 우수 상품을 말레이시아 내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에 한국식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중견업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분지주, 김, 즉석 냉동식품 등 연간 약 5만불 정

도의 고창상품의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려무역(주) 대표 윤덕창은 싱가포르 최대 한국식품 유통기업이다. 8개로 직영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 업무협약(MOU)을 통해 복분지가공품, 고창 농산물 등 연간 약 5만불 정도의 고창상품의 수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마테오 대표는 “한국 상품을 오랫동안 취급해 왔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군이 청정하고 다양한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고창 상품의 말레이시아 수출회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덕창 대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고창군과 수출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며, 고창군 농특산품이 관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농특산품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KMT(주)와 고려무역(주)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건강한 고창의 먹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더욱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공부에 대한 의지 다질 수 있어”

정읍시, 고교생 ‘진로멘토링, 내 꿈의 대학탐방’ 진행

정읍시는 관내 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멘토링, 내 꿈의 대학탐방’ 프로그램이 지난 20~21일 고려대와 한국외대, 서울대에서 진행됐다.

정읍시 인재양성과는 우리 지역 청소년의 진로, 진학 탐색을 돋는 진로멘토링 대학탐방을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고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대학탐방에서는 고려대학교와 한국외대, 서울대에 재학중인 정읍출신 선배 9명이 고학에서 올라온 후배들을 맞이하며,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대학생생활과 과목별 공부법, 자신의 꿈과 다양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학탐방은 참여한 김예림양(서영여고 1)은 “진로멘토링 참여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명문대 선배들의 공개모집이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방법과 생활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선배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대학교 전공선택 등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캠퍼스를 직접 돌아보며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탐방은 9월 2~3일 있을 계획으로 8월 초순에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청년농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24일 진행

토마토 외 2개 품목 우체국쇼핑몰·네이버 쇼핑라이브서 최대 46% 할인판매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종)은 우체국쇼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부안을 지키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청년농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우체국쇼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한시간동안 진행되며, 청년농부가 재배하는 토마토, 청년야부가 어려워하는 깊고 짙어, 상설시장 청년상인이 제조하는 뽕갈비를 기준가격

보다 최대 40% 할인하여 판매한다.

또한 라이브 방송시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인증을 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기프티콘 및 랜덤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라이브방송은 부안군 청년농·어업인의 판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최근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라이브커머스가 유통시장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도 윤리적인 유통시장을 적극 확대해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동진수미김밥사를 판매한 결과, 시청자수는 18만명, 11,519천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번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우체국쇼핑몰 부안군 전용 브랜드관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노형수 고창군부군수, 행안부 방문 ‘재해예방사업’ 총력 대응



노형수 고창군부군수가 지난 22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재해예방사업의 국비확보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재해예방 사업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봉괴 위험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민관 안전한 고장을 위한 예산보조의 사급성을 강조했다.

노형수 부군수는 이날 이상원 행안부 재난경감과장과 만나, 고부천(무립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총사업비 278억원), 육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95억원), 교촌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30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 대산면 회룡리에서 공음면 덕암리에 이르는 ‘가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00억원)’도 건의했다. 시양수장 신설, 취입보 개량, 저수지 확장 등 수리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총사업비 100억원)’ 등도 건의하면서 안정적인 영농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노형수 부군수는 행안부 김선조 균형발전지원관과 면담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 지원 요청했다.

고창군은 세종시에서 2차례에 걸쳐 현지 대응 전략회의를 여는 등 국가에 산 확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형수 고창군부군수는 “재해 없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국비 확보는 필수 요소인 만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부처 예산보조 등 행정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부정적 기류시 부서장이 적극 대응하면서 민선8기 예산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교육지원청, 2023년 창의과학축전 개최

2023년 정읍창의과학축전이 지난 19~20일 정읍시 천연 어린이 축구장에서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코로나9로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축전이 온해는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17회를 맞은 정읍창의과학축전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로 과학 미래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연례 과학축제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번 행사는 50여개 과학체험 부스를 18개학교 250여명의 학생과 교사

가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3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도 후원 및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등 각 유관기관들도 안전한 행사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세계잼버리 D-50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MC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은 유명 가수의 초대 공연을 결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특산물도 함께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안군 읍면사무소와 군청 홍보팀에서 접수하며 예상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예심은 오는 6월 22일 오후 1시 부안 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15팀 내외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